



국립환경연구원 최덕일 원장

“ 살아있는 연구, 수요자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 늦었지만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과 향후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남북문제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와 시련을 겪고 있고, 세계는 안팎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청사 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과 환경관계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환경분야의 관심도는 높아가고 다양해지지만 이를 충족시키는데는 사실 역부족이 있습니다. 불광동시대에서 김포시대로 옮겨 오면서 문제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국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연구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연구원의 주요사업과 올해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원은 내분비계장애물관리,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사업, 동북아대기오염감시체계구축사업 등인데 국가환경연구기관으로서 나라의 환경 연구를 끌고 가야하므로 현안사업, 장래예상주요사업 등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분야에 오랫동안 재직해오셨는데 환경분야 중 어떤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재임 기간 중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전공이 약학인 관계로 환경을 공부하면서 환경과 관련한 위해성평가, 대기관리 분야, 생태계 분야를 추진했고, 특별히 추진중인 과제는 과장, 부장의 결재라인으로 이어지는 연구업무의 비효율성을 팀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연구사업에서 벗어나 장·단기로 나뉘 효율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시기적인 환경실태 조사 및 기타 환경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타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연구를 재임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 부족한 인력대체로 생산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홍보와 검증단계를 거쳐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유일한 국가환경연구기관이며, 우수한 연구인력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신뢰도가 낮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임기간 동안 국민과 함께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활동을 늘리고 각 단체와 연계한 기술개발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급인력이 살아있는 연구원, 수요자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최첨단의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한·중환경과학기술교류센터, 올해 동북아시아환경데이터 및 훈련센터의 발족과 더불어 국제환경연구협력을 강화하여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 미비로 환경기술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상태와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환경연구를 하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연구결과가 실생활에 활용되는 데는 수많은 반복실험과 검증이 필요한데 국민, 기업, 정책부서는 현



안문제의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입장이므로 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를 선택할 때에도 수요자에 필요한 연구보다는 연구원 위주의 과제선택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사업도 여건이 성숙해져가고 체계적 정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좋은 결과를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상용화기술성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성과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환경과학기술개발사업 89과제 등 총 140과제에 4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진행되고 있고, 내년은 기업투자 포함 1000억원의 예산으로 에코테크노피아 실현을 위한 좀더 실용성 있는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수요자와의 교류를 통해 보급되는 기술개발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한 홍보 또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철학 내지 연구원 운영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철학보다 오랫동안 연구원에 재직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직원간의 인화단결, 우애협력, 역지사지 등을 강조해 한 연구원이 세 사람 몫 이상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습관까지는 아니지만 음식물쓰레기 남기기 않기를 꼭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국내 환경실태를 평가하신다면?

70년 후반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유지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전반적인 환경의식 향상에 따른 많은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보아집니다. 몇몇 대기업만이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실천하고 있지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경제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마인드의 향상은 경제발전과 비례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환경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럴 때 보면 환경부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난 개발이다, 뭐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환경의식도 너무 낮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잘 알고 있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88올림픽 때는 좀 잘되었던 것 같



은데 말이죠. 기업이 이익에 약하다면 국민은 너무 편하려고만 해서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대책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 문제도 모든 환경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각 부분별 기업, 정부, 국민으로 나눠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를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책안이 나오면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환경의식고취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해 R&D 예산 6-8천억원 중 환경부분은 300억원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결정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거죠. 하지만 국민들의 작은 실천, 기업들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민의 환경의식이 나라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원 또한 생활에 밀착된 환경관련 연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옆에 위치한 것도 앞으로의 실용화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취임한지 3개월이 넘어섭니다. 오랫동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일하며 '원장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했던 것들이 물질·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확인한 것이 아쉽습니다. 백화점식 연구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개발, 신뢰할 수 있는 환경관련 연구를 하지 못했음이 안타깝네요.

▶마지막으로 기업환경관리의 일선에서 땀흘리는 환경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타이틀,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라는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근무여건 속에서도 곳곳하게 제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관리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이익과 반대입장의 일선에서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타이틀,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라는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근무여건 속에서도 곳곳하게 제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도 관리인들과의 유대관계를 많이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대에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으로 인한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환경시대를 앞

당기기 위해 국민 모두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해 나가는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덕일 원장의 주요약력

1943년 6월 1일 서울 출생

◎ 학력

- 1965. 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1970. 1. 국립과학관 연구부 보건연구사
- 1971. 2.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

◎ 경력

- 1974. 11. 국립보건연구원 대기보건과 보건연구관
- 1978. 8. 국립환경연구소 대기분석과 보건연구관
- 1980. 2. 동 연구소 대기화학담당관
- 1980. 대기기술사 취득
- 1991. 5~1998. 8. 국립환경연구원 환경보건연구부장, 대기연구부장, 환경위해성연구부장
- 1990. 8.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 1997. 9. 고운문화상 수상(고운문화재단)
- 1998. 9~2000. 8.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 센터장
- 2000. 1. 한국분석과학회 회장(현재)
- 2000. 8. 국립환경연구원 원장(현재)